

# 고인돌은 곧 '국가' 상징

국내 고인돌 건립 기원전 4천년 경으로 추정... 찬란한 청동기 문화 존재 입증

## 고인돌

### Goindol

지난 2000년 11월 말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로 불려도 좋을 만큼 많은 고인돌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한반도 전역의 고인돌은 북한지역의 3,160기(북한은 1996년에 평양 부근에서만 1만4,000기의 고인돌이 있다고 발표)를 비롯하여 모두 2만9,510기(基)에 달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요령지방(고조선 영역)에 316기, 일본 규슈(九州) 지방에 600여 기, 인도네시아에 200여 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는 약 6만 기로 추정되므로 2만9,510기라면 전세계 고인돌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이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2,200여 곳에서 무려 2만여 기가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단일면적 밀집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소위 '고인돌 문화지대'라고 불려도 될 만큼 풍부한 자료가 산재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다른 나라의 고인돌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의 고인돌과 달리 사람 뼈와 함께 부장품이 출토된다는 사실이다. 부장품이 있다는 것은 고인돌의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를 근거로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고인돌의 크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크게 북방식(탁상식 : 네 개의 반석을 세워 돌방(石室)을 만들고 위에 큰 뚜껑돌을 올려놓는 것), 남방식(바둑판식 : 지하에 판석이나 할석 등을 이용하여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낮은 받침돌로 뚜껑돌을 올려놓은 것), 개석식

(蓋石式 : 받침돌 없이 뚜껑이 직접 지하 돌방을 덮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의 남방식 고인돌(사적 410호)은 길이가 7.3미터, 폭 5미터, 두께 4미터, 추정 무게만 무려 280톤짜리의 초대형 거석이다.

북방식은 남한에도 있지만 강화, 인천, 수원, 이천을 연결하는 선을 한계로 그 북쪽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강화도 부근리의 고인돌(사적 137호)은 뚜껑돌 만해도 길이 7.1미터, 폭 5.5미터, 높이 2.6미터에 달하는 흑운모 편마암으로 추정무게 80톤으로 남한 최대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무리 중에서 유달리 큰 고인돌이 하나씩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12기가 독립적으로 발굴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0여 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100~200여 기씩 무리를 지어 있는 채로 발견된다.

유달리 큰 고인돌은 촌락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 고인돌, 국가 탄생의 의미 지녀

우리나라 고인돌은 '북방설', '자생설' 등으로 그 기원설이 나누어지지만 아직 확정된 정설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고인돌이 중요시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고인돌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고인돌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학적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로 들어선 경우에만 비로소 그 민족이 국가라는 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고인돌은 비록 유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고인돌 자체만을 갖고도 청동기 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해준다. 즉 고인돌의 연대가 올라갈수록 바로 그 시기부터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부장품을 통한 절대 연대 측정 자료에 의하면, 중국 요령 소재 고인돌은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에 축조되었으며, 개석식에서만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감안하여 북방식이 먼저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길림지역의 경우, 부장품들이 대표적인 청동기 문화인 보산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아 기원전 10세기로 추정한다.

그러나 한반도로 들어오면 고인돌의 축조 연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다. 북한 학자들은 평양 일대의 고인돌 무덤을 침촌형, 오덕형, 묵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침촌형은 그 연대가 무려 기원전 4천 년 후반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스톤헨지나 프랑스의 카르나크 열석과 비슷한 시기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한국의 고대사를 획기적으로 다시 쓰게 만든 것은 평양시 강동군 남강 로동자구에서 발견된 황대성(黃岱城) 위에 있는 고인돌이다.

## 평양 일대 고인돌, 영국 스톤헨지와 같은 시기

놀라운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 평평하게 된 성벽 위에서 고인돌 무덤이 발견된 점이다. 이 고인돌 무덤은 이른바 오덕형 고인돌 무덤류에 속한다. 이는 황대성이 폐성(廢城)이 된 다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축조된 무덤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폐성이 된 성벽의 연대 추정이었다. 고인돌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밑에 있는 성벽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 즉 기원전 3천 년경에 축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고인돌의 건립 연도가 5~6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그 시기부터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게다가 고인돌과 함께 발견된 청동기 부장품들의 존재는 “한반도에 청동기 시대가 없었거나 극히 미비했다”고 하는 이론들을 여지없이 일축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마디로 고인돌의 존재는 뛰어난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의 고대문화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유산이다.

특히 프랑스 국립과학기술연구소(CNRS)의 고저 주스므 박사는 화순군의 경우, 그 밀집 형태가 특이해 고고학 공용어인 ‘돌멘(Dolmen)’ 대신 ‘고인돌(Goindol)’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을 볼 때,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인돌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 가를 알 수 있다.

이종호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 · 과학저술가

